

□ 한국지역주의의 특성-지역신분제 형성

개발독재 미명아래 고착화된 지역갈등

정치적 해결없이 지역이데올로기 발생 막지 못해

얼마후면 제15대 대선이 치뤄진다. 우리나라는 대선이 있을 때마다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인들에 의해 더욱 깊은 갈등의 굴이 패였다. 현재의 지역주의는 지역패권을 넘어서 하나의 지역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우리 신문사에서는 이번 기획을 통해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갈등과 지역감정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국선은 순서

1. 한국 지역주의 발생과 고착화 과정
2. 한국 지역주의의 특성
3. 한국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견해

취 영 관

〈전남대 교수〉

지역문제의 올바른 인식

우리민족은 통일신라 이래 약 2천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서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민족 역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예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역사적 경우이다. 오랜 역사의 전통은 그 나름대로 훌륭한 신성성을 가지며, 그것이 온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는 응집력과 결속력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체가 된다. 우리 민족은 그러한 역사를 공유하면서 단일 민족으로 5천여년을 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주해 왔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에 있어서 지역갈등이나 문화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기의 특성을 타의 그것과 차별화함으로써 자기만의 독특성을 보편화 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동력이 되고 역사 발전의 변증법적 핵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갈등과 대립이 갈등을 위한 갈등, 대립을 위한

의 지배권력을 유지 확대해 가면서 이른바 개발독재라는 미명아래 인종분류의 편파성과 지역개발의 불균형 정책이 고착화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군부정권의 장기화는 정치적으로는 비민주적 독재성을 낳았고, 경제적으로는 지역 불균형을 첨예화하였다. 그리고, 독재군부정권이 극복되려는 순간 나타난 신군부에 대한 특정지역의 민중항거는 이 땅에 근대적 의미의 민주화를 위한 파롤리는 역사를 함께하였다. 이 때문에 더욱 심화된 지역갈등은 지역적 적대감으로까지 진전되게 되었다. 더욱이 대선이 있을 때마다 지역갈등이나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인들에 의해 한국의 지역갈등은 더욱 깊이 깊어져 치유하기에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고 한 지역의 지역패권을 넘어서 하나의 새로운 지역이데올로기로 발생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지역갈등의 특성

우리의 지역갈등은 위에서 살펴듯이 군부정권의 장기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력의 독점과 경제이익의 불균형 개발에서 시작하여 신군부의 권력 탈취에 대한 시민의 민주화 항거로 이어지면서 절정에 이르러져 있었고, 이것이 대권 후보들간의 정치적 이용으로 확산 되면서 심각성은 더욱 증대 되었다. 지역갈등이 악용되는 과정에서 역사상까지 소급하여 접목시키므로서 갈등의 심각성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감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고말았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갈등을 빚고있는 지역주민간의 왕래나 일회성 협력행사에 의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정신에 따라 근본적인 정치적 해결이 없는 참으로 어려운 단계에 온 것이다. 그간 갈등 속에서 기록된 특성은 지역 중심의 판로체계 형성에서 오는 인종중원의 편제와 재벌의 편중에서 나타나는 지역 경제의 불평등 문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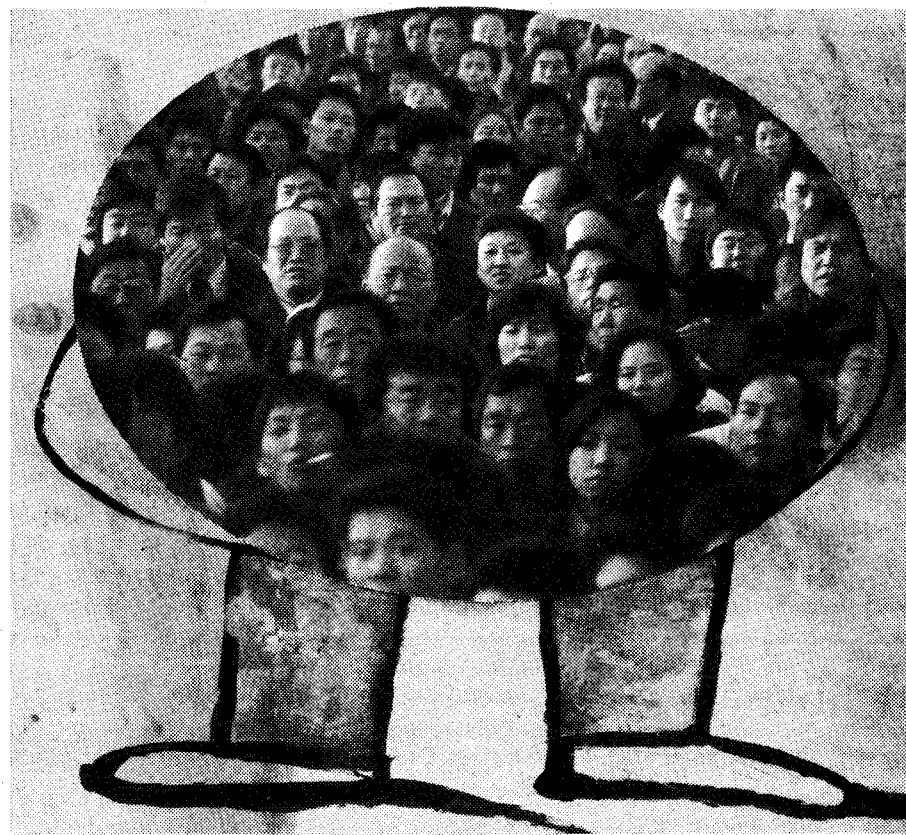
특징지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정책 대안의 실행이 없는 한 불가능하게 고착화된 느낌이다.

특히 군부정권의 30여년간의 장기적인 횡포는 정치적으로는 비민주성을 고착화시켰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정치엘리트의 층원 과정에서 이른바 'TK사단'을 낳게하여 결과적으로 이지역의 선량한 대다수 시민의 이미지마저 동등그러져 갈등에 이용되었다.

지연상 인적충원의 편중문제를 1991년 김만홍교수의 연구인 '제6공화국과 지역감정의 심화' '지역감정 연구' 서울.학민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 핵심인 장관직의 경우 3공과 5공시절 전체의 36.1%가 특정지역(영남지역) 출신이고 6공 시절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정책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 관료직에도 영남 출신이 28%로 단연 우위를 점하였고 권력 최고자인 대통령 보좌관인 비서실과 경호실의 참모도 영남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당시 권력 창출의 기반인 군의 경우 육군참모총장은 5공과 6공에서는 전원 영남출신이고 군장성에서도 무려 44%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호남지역 출신의 배출 비율이 높은 사법엘리트 층원에서도 3공이래 영남출신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 5·6공에 이르러 단연 압도적이 되었다.(안병만, '한국의 파워엘리트 연구', 한국정치학회편.)

합리적 인식만이 해결책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역차별에서 오는 갈등은 지난해 어느 시시할간지 7월호에서 조사된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에서 결혼 할 때 출신지역 때문에 결혼이 반대'를 수 있는 사례가 전체의 53%이고 출신지역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는 전라도 출신이 87.6%이고, 경상도가



9.2%, 강원도가 1.4%, 서울이 0.6%, 경기도가 0.3%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의 경우는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타지역 사람과의 결혼에 피해를 보는 경우로서,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새로운 지역신분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출생지 지역 신분제 형성은 지역갈등이 얼마나 우리사회에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며, 이것은 민족대통합을 이룩해야 하는 긴박한 순간에 와 있는 우리로서는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 이를 위한 합리적 인식에 바탕하는 국민적 이해와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이 요구되는 바이다.

신 간 안 내



선전포고 이 책은 우리민족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며, 그 길로 가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분석하고 있다. 경희대 법과대학에 재학중인 필자는 이 책에서 작가 나름대로의 정치철학 및 통치철학, 그리고 한민족의 비전을 담음으로써 국민들의 애국심과 민족애를 높이고 민족의 통일과 선진 국가 건설에 국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창작교실 글쓰기의 과정에서 도출해 낸 작품들의 창작배경과 창작과정 등을 진술하게 담고있는 이 책은 제간 '실천문학'에 94년부터 '나의 창작교실'이라는 코너를 마련해 매 호마다 당시 화제가 되고 있는 작가들을 선정하여 실었던 글들을 묶어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창작교실은 창작에 대한 지침서가 전무한 현실 속에서 많은 문학지망생들에게 창작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로 인식되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대한 독자의 사고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씨춘추 이 책에서는 제3의 권력으로 성장한 재벌의 끊임없는 확장욕구가 부도덕한 자본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의 산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정치경제 지배력을 장악해 나가는 재벌의 모습과 특히 권력과 결탁하고 때로는 권력마저 조종하는 재벌권력을 긴박한 스토리 전개로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여러 기업과 기업인, 정부관료 등이 등장하는데 인명과 지명, 사건내용 일부와 사건의 전후 맥락을 약간씩 바꿨을 뿐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음모를 주요하게 다루며 기업의 부도덕성을 극적으로 강조한다.

이씨춘추는 5년동안의 자료수집과 기획으로 작품 속에 리얼리티를 갖추고 있으며 일제와 독재의 뒤를 이어 제3의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재벌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주제 의식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작품은 풍부한 실물경제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재벌문제에 깊이 천착해온 이신행의원의 작업의 결과로 평가되며 이미 잘못된 궤도로 들어선 한국재벌문제가 진정한 국민경제와 국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 서평-전쟁으로 보는 한국역사

비판적 전쟁사 복원으로 주체성 확립 성과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국난을 단호한 결의로 이겨냈다. 그러나 조상들의 이러한 정신들이 계승되고 전승되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이 읽을만한 '전쟁사'가 지금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히 국사책에 나오는 역사의 나열만을 보았을 뿐이다.

이번에 발간된 '전쟁으로 보는 한국역사'는 전쟁을 통해 전쟁 그 자체와 전후에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분석해 놓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민족이 싸워온 과정을 다루고 있으나 국사책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국난 극복사의 기술' 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조건과 사회구조에 따라 당시의 군사체제와 전쟁들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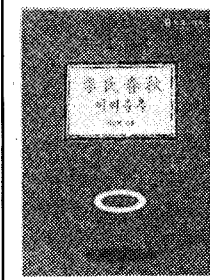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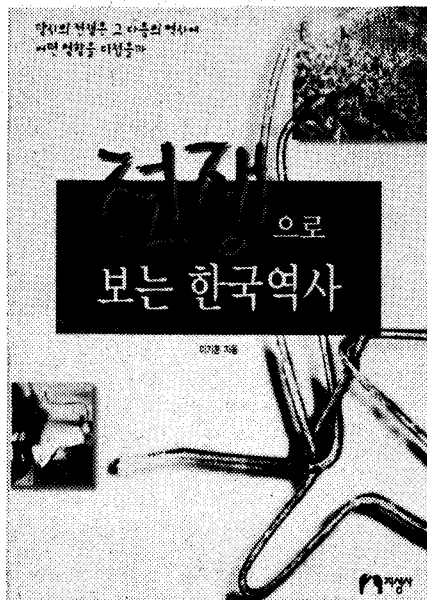
전쟁을 '국가 또는 이미 국가 수준의 정치적 통합을 이룬 집단 간의 전면적인 무력충돌'로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시 군인의 신분과 시대적 의미들을 도출하고 있으며 사회상황에 따른 전쟁의 목적과 역사적 영향을 유추해 내고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쟁' 하면 '열렬한 충성심'만을 생각하는 단편적인 역사인식을 물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행주대첩' 하면 행주치마를 연상하고 마는 정체된 사고를 실질적이고 활동적으

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세계화라는 무기를 가진 외국의 문화가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다. 평화라는 말이 무력적 전쟁에 대한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나 전세계가 외치는 세계화가 무한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을 창출하고 있어 어느때보다도 주체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게 지적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의 '전쟁으로 보는 한국역사'는 우리의 전쟁사를 새롭게 복원해 내 자주성과 주체성 확립에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다. (학술부)



농협중앙회 대졸직원 모집

1. 채용 예정 인원 : 000명
 - 실경계열 법학계열, 인문사회계열, 농과계열, 어문계열, 이공계열, 전산계열, ROTC 입관예정자 각 00명
2. 응시자격
 - 학력 : 4년제 정규대학 '98.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업졸자 중 모집관련 계열학과 전공자로서 전학년 또는 3, 4학년 성적 평균평점 B학점 이상인 자
 - 연령 : - 학사 : '74. 1. 1 이후 출생자 (영역필자는 '69. 1. 1 이후 출생자)
- 석사 : '72. 1. 1 이후 출생자 (영역필자는 '67. 1. 1 이후 출생자)
- ROTC 입관 예정자 : '74. 1. 1 이후 출생자
 - 병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일시 : '97. 10. 9(목) ~ 10. 14(화)
 - 장소 : 교부(해당 대학교 취업보도실), 접수(지정 장소)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필기고시(영어, 일반논문, 인성·적성·사무능력검사)
 - 3차 :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사
5. 필기고시 일시 및 장소
 - 일시 : '97. 11. 9(일) 09:30 ~ 13:20
 - 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6개 지역의 추후 지정 장소에서 실시

문의전화 : 서울 (02)397-5306 ~ 8
경기 (0331)220-6600 강원 (0361)258-6036 충북 (0431)229-1643 충남 (042)229-6103
전북 (0662)240-3016 전남 (062)220-7516 경북 (053)940-4400 경남 (051) 66-1632
제주 (064) 20-1214 부산 (051)860-8043 인천 (032)420-2412 대구 (053)256-2511
광주 (062)527-6501 대전 (042)220-0822 울산 (052)227-6061